

KT (영어영문학과 14)

▼ 지금의 진로 선택 기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개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기술도 배우고 싶었고, 컴퓨터 언어도 언어니까 좀 통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재미가 느껴져서 진로를 확실히 결정했습니다. IT 분야의 취업 기회가 넓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 진출 분야를 위한 교과-비교과 준비 방법

교과는 학점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교과는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환학생을 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취업 준비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인적성 필기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학교 공지사항과 일정을 자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던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취업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또는 추천 영상/음악)

저는 스물아홉살에 취업했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때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IDT (불어불문학과 16)

▼ 지금의 진로 선택 기준

대학 시절, 불어불문학과 컴퓨터공학의 교차점에서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며 저만의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항공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공산업은 자체적으로 국제적인 맥락과 다문화적인 환경을 지니며, 복잡한 시스템 운용이 동반됩니다. 제가 지닌 IT 기술은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여행을 좋아하는 저에게 항공권 할인과 같은 특별한 복지는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지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서 스트레스 해소와 다양한 문화의 체험, 그리고 직장 내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며, 저의 업무 역량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 진출 분야를 위한 교과-비교과 준비 방법

교과 과정의 경우, 전공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기본이며 심화 학습을 통해 역량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격증 취득이나 프로젝트 경험 등을 추천합니다.

비교과 과정의 경우, 관심있는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턴십(*)이나 동아리 활동, 외부 세미나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과 교류를 확장하고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진로 분야를 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탐색하면서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취업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또는 추천 영상/음악)

자기소개서나 면접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최근까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일이 있으면 학교 일자리지원센터에 첨삭을 받곤 하는데, 퀄리티도 높고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재학생 시절에는 이렇게 있는지 몰라서 도움을 못 받았던게 많이 아쉬워요.

애버커스 (사학과 10)

▼ 지금의 진로 선택 기준



자신이 관심있는 것 중에 가장 접근 가능성이 높은 것. 몸이 안좋아서 사무직을 알아봤음.
공통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중에 데이터분석에 관심이 생겨 이쪽을 살펴보았음.

▼ 진출 분야를 위한 교과-비교과 준비 방법



내일채움공제로 몇개월 돈걱정 덜면서 관심분야 들어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컴공 수준이 아니라면 자료구조와 기본 프로그래밍언어를 따로 배워보는게 자신이 이걸 해도
괜찮은지 가능하기 좋습니다.

▼ 취업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또는 추천 영상/음악)



시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티비 주식회사 (문화콘텐츠학과 13)

▼ 지금의 진로 선택 기준

CJ ENM 인플루언서 사업(DIA TV)부문에서 일하면서,
인플루언서 채널을 광고 상품으로 만들어 광고주에 영업하고 캠페인을 실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인플루언서 → 광고주 매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IT 서비스 운영이 제 적성과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IT 프로젝트 운영을 경험하고 싶어서, 현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 진출 분야를 위한 교과-비교과 준비 방법

1. 재학 중

처음엔 시나리오 작가를 꿈꿔서 상업영화 스태프, 독립영화 제작에 도전했습니다.
그 다음엔 음반 제작자를 꿈꿔서 인디 음악 레이블을 만드는 파란학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에는 소질이 부족한 것 같아서,
콘텐츠를 잘 만드는 대신 잘 팔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나 사회학적인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융복합 트랙(문화산업과
커뮤니케이션학)을 선택해서 수강했습니다.

2. 졸업 후

하지만 경영학을 복수전공한 것은 아니다보니 마케팅 직종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래서,

- 프로모션 대행사에서 AE로 6개월 근무했고
- 디자인 굿즈를 판매하는 스타트업에서 마케터로 2개월 근무했습니다.
-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한 배경을 쌓을 수 있는 교육들을 찾아서 들었지..만, 큰 도움이 되었는데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후 CJ ENM 인플루언서 사업부문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2년 반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 취업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또는 추천 영상/음악)

저는 스물아홉살에 취업했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때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OK금융그룹 (영어영문학과 14)

▼ 지금의 진로 선택 기준

- 1)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 2) 내 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인지
- 3) 미래에도 전망이 괜찮은지

위의 세 가지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 진출 분야를 위한 교과-비교과 준비 방법

교과)

요즘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잘 몰라서 확답은 드리기 어려우나, 데이터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지식들은 교과에 있는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며 부가적으로 관련 자격증 공부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과)

관련된 교내 소학회나 동아리가 있으면 활용하면 좋습니다. 대외활동을 열심히 찾아보면서 향후 직무에 관련된 활동 해두시면 그 자체로 자소서에서 좋은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또는 추천 영상/음악)

취업이 힘든건 당연히 가고싶은 회사와 직무에 여러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이고, 회사입장에서는 보다 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뽑기 마련입니다.

본인 스스로 열심히 했으나 취업이 안되는건 본인 탓이 아니라 회사의 니즈와 본인의 타이밍이 안맞은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들 취업은 합니다. 몇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계속 시도하세요. 결국 취업 전까지는 모두 과정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을 믿으세요. 감사합니다.